



2021. May

통권

제131호

발행인 김현철 | 발행일 2021년 5월 6일 |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연구 II

최창욱 선임연구위원
좌동훈 연구위원

요약¹⁾

- 국가자격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쳐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연구」를 수행함. 1차 년도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2차 년도인 2020년에는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을 제시함.
- 청소년상담사의 양성은 「청소년기본법」 등과 관련 법률을 근거로 자격검정과 연수, 보수교육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음.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청소년상담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등 양성과정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사 양성 관련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였고, 청소년상담사의 직무와 핵심역량, 자격검정제도, 처우개선 사항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직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더불어 정책담당 공무원, 청소년상담관련 전문가, 학계 교수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함.
- 이를 통하여 청소년상담사 양성시스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청소년상담사 보수기준표를 개발함. 청소년상담사 양성시스템 재구축을 위하여 ① 청소년상담사 양성 관련 제도 개선, ② 청소년상담사 양성 관련 인프라 정비, ③ 청소년상담사 양성 관련 연구개발(R&D) 강화의 3영역, 10대 세부과제를 제시함. 청소년상담사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청소년상담 복지 분야 능력단위에 기초한 직무를 분석하여 직무모형을 제시함. 또한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타 유사직종과의 비교 등을 바탕으로 일반직공무원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보수기준표 및 수당체계를 제시함.

1) 이 원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년 고유과제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연구 II'를 발체·요약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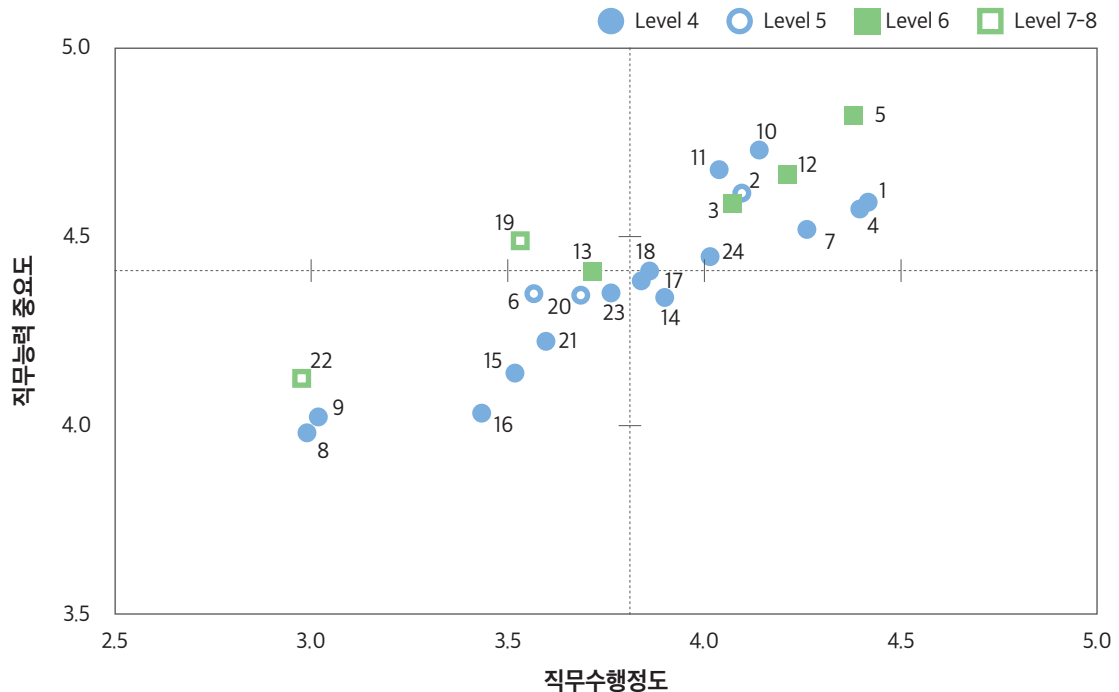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과 예방에 대한 상담 전문가인 청소년상담사의 양성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자격검정과 연수, 보수교육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지만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를 감안한 지도자 양성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음. 그동안의 청소년상담 및 복지정책은 성인, 중앙정부, 전문가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청소년이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는 요구의 충족을 위해 각종 청소년지도자를 비롯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성격을 고수해 왔으나, 이는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미래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4차 산업혁명의 기하급수적 변화 속도 앞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가지기 어려움(이광호, 강주연, 2018).
-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상담 및 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자를 키우기 위하여 제도개선과 학습, 연구 등 지원 강화 촉진,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기술 함양,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역량제고를 위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관계부처합동, 2018).
- ▶ 기존 연구들(황순길 외. 2005; 서영석 외. 2013; 김창대, 이은경, 김인규, 2013; 김동일, 김인규, 서영석. 2017)에서는 공통적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과 관련하여 사회변화에 적절한 대비가 미흡하여 청소년상담사 역량제고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상담사 등급 및 응시자격 요건과 자격검정 과목(과정), 자격연수와 보수교육 운영방식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상담사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아울러 청소년상담사 직무모형을 개발하고 정부와 현장의 현안요구인 청소년상담사 직급기준, 보수기준표(안) 등 처우개선 방안도 제시함.

2. 연구결과

▶ 청소년상담복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무 검토

- 청소년상담사의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 개발된 청소년상담복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현장 종사자를 통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함.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청소년상담복지 분야 직무능력 단위의 현재 직무수행 정도의 평균은 3.80점이며, 중요성 평균은 4.41점으로 현재 직무수행 정도와 중요성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상담복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능력단위별 직무수행정도(빈도) 및 직무능력 중요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즉, 상담현장에서 높은 빈도로 수행하는 능력단위일수록 향후 요구되는 직무능력 중요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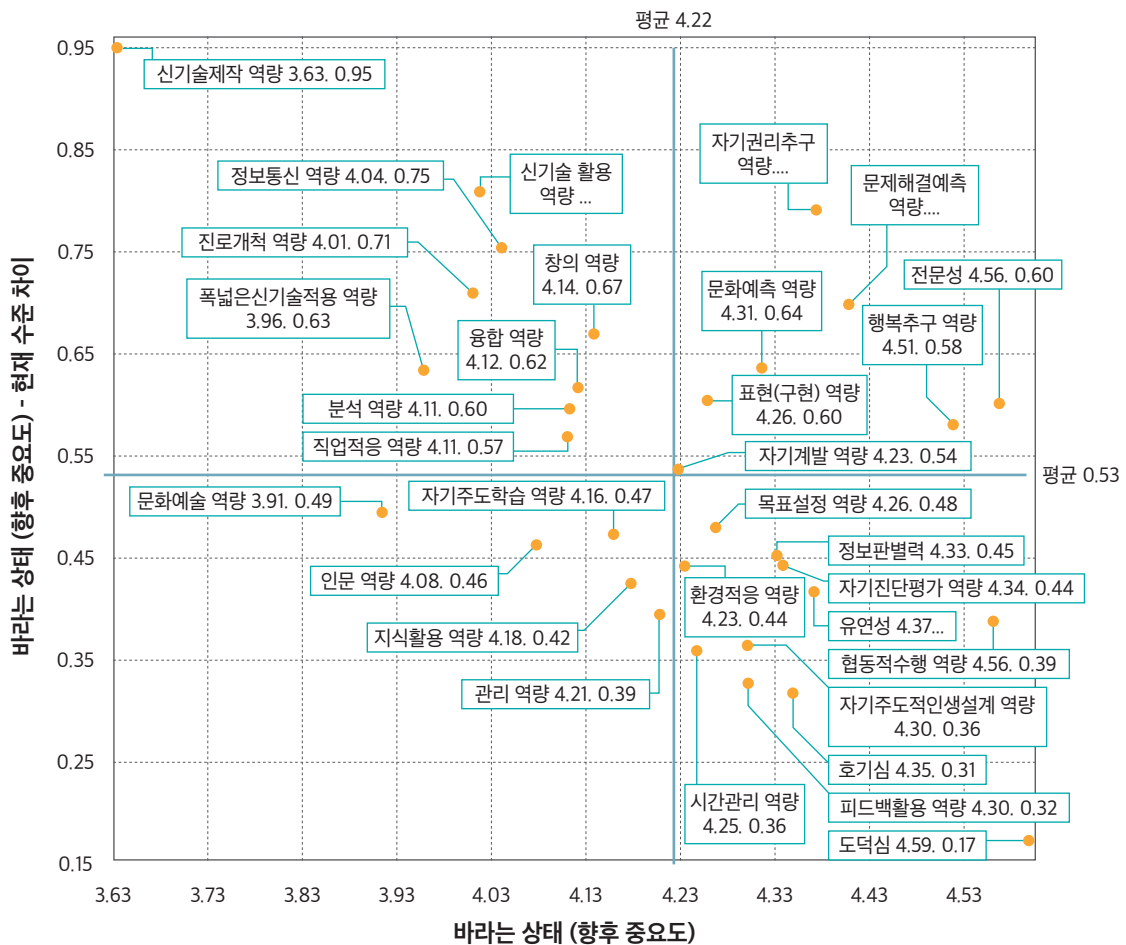


* 주: 1) 1=내담자 응대, 2=접수면접, 3=심리평가, 4=상담준비, 5=개인상담, 6=집단상담, 7=전화상담, 8=게시판·메일상담, 9=채팅상담, 10=위기상황 확인, 11=위기지원, 12=청소년부모상담, 13=상담자문, 14=진로상담, 15=진학 및 취업지원, 16=생활기술교육, 17=청소년 사례 통합관리 준비, 18=청소년 사례 통합관리 운영, 19=상담수퍼비전, 20=청소년(상담자) 교육훈련 준비, 21=청소년(상담자) 교육운영 및 평가, 22=청소년상담 연구개발, 23=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24=지역자원 연계 협력
2) NCS 능력단위별 수준은 ncs.go.kr을 참고로 부여

[그림1] 청소년상담복지 NCS 능력단위별 직무수행정도(빈도) 및 직무능력 중요도 관계

청소년상담사 미래인재핵심역량

- 청소년상담사에게 필요한 미래역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류성창, 조대연(2017)의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인재 핵심역량' 도구를 활용하여, 청소년상담사 양성과정에 시사점을 제공하려 하였음.
- 미래인재 핵심역량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상담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역량 수준 평균은 3.69점이며, 향후 중요성 평균은 4.22점으로 현재 역량 수준과 중요성 간의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미래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상담 현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청소년상담사 직무 유형별 인재상 또는 역량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청소년상담사 양성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 도모의 필요성 높음.
-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결과, 현장 청소년상담사들이 스스로 진단한 결과 바람직한 수준과 현재수준 모두 높은 역량은 자기권리추구 역량, 문제해결예측 역량, 문화예측 역량, 전문성, 행복추구 역량, 표현(구현) 역량, 자기계발 역량이었고, 모두 낮은 역량은 자기주도학습 역량, 문화예술 역량, 인문 역량, 지식활용 역량, 관리 역량이 나타남.



[그림2] 미래인재 핵심역량 현재 수준 및 중요도(The Locus For Focus 모델)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제도 개선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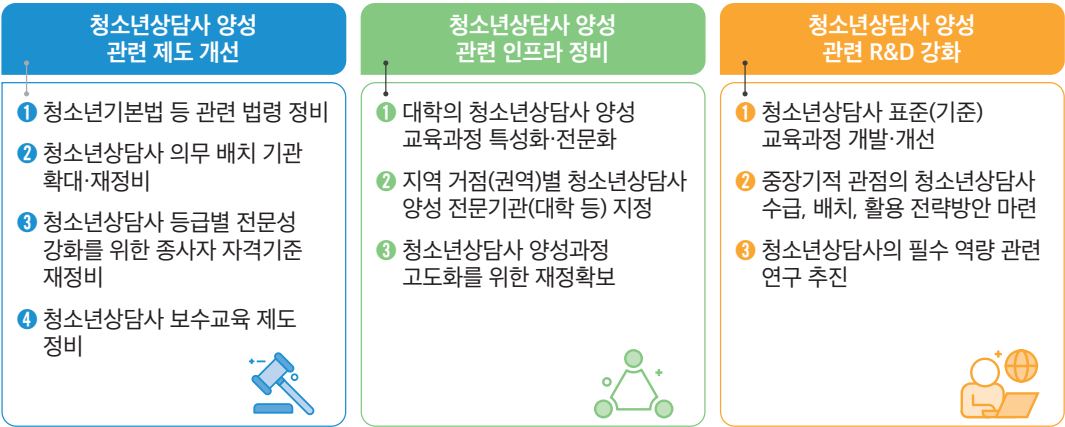
- **청소년상담사 자격급수제도** : 청소년상담사는 현재의 1급, 2급, 3급으로 이루어진 청소년상담사 자격급수제도 유지를 선호함. 이것이 전문성 향상, 취업에 유익하다고 판단
 - 청소년상담사 자격급수제도에 대해 1급, 2급, 3급 운영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84.9%, 3급 자격의 전문성 향상 및 취업에 대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7.9%, 청소년상담사 3개 급수를 2개 급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데 반대 의견이 53.8%임.
- **청소년상담사 의무배치** :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사 의무배치 기관 확대에 대하여 확대 의견이 현행유지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청소년상담사 의무배치 기관 확대에 대한 의견은 의무 배치 기관 확대에 대하여 현행유지 46.0%, 확대 54.0%로 나타남. 보수교육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은 87.5%, 의무교육대상자 교육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진다는 의견이 87.7%임.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필수과목 활용도** : 필수과목의 현장 활용도는 1급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2급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3급 발달심리 등 대체로 실무과목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필수과목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1급인 경우,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79.2%,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70.3%, 상담연구방법론 54.9%.
 - 2급인 경우,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86.9%,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53.8%,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83.5, 이상심리 88.5%.
 - 3급인 경우, 발달심리 86.4%, 집단상담의 기초 80.5%, 심리측정 및 평가 81.2%, 상담이론 88.2%, 학습이론 73.0%로 파악됨.
-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 청소년상담사들은 연수 100시간 이상 의무이수 제도, 급수별 집합교육, 자격연수 사전과제 등에 대하여 현행유지를 선호함.
 -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관련 자격연수 100시간 이상 의무적 이수 제도에 대하여 현행 유지 71.0%, 집합교육의 필요에 대하여 현행유지 56.7%, 급수별 사전과제 필요에 대해 54.7%가 현행유지 응답.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에 있어 현행방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은 보수교육 8시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83.9%, 보수교육 운영 단위는 현 시행 방식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53.0%, 보수교육 연수형태는 현재 운영 방식인 집합과 이러닝 형태는 58.5%가 적절하다고 함.
-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향상** :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대학 전공 확대, 상담실무 경력 중심 응시자격 강화, 청소년 위기유형별 전문자격 도입, 청소년상담사 전공 이수과목 정비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전공 이수과목 정비 62.7%, 자격검정 선택과목 폐지 30.6%, 상담실무 경력 중심 응시자격 강화 72.3%, 전공 중심이 아닌 과목 이수 중심의 자격검정 자격 부여 44.4%, 청소년 위기유형별 전문자격 도입 66.2%, 청소년 상담사 응시자격 대학 전공 확대 79.4%로 응답함.

▶ 청소년상담사 처우(직급, 보수) 실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 직급 및 직위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 센터 차이 존재
 - 전체적으로 개선 필요 50.7%, 불필요 49.3%로 나타남. 시/도 및 시/군/구 별 현 직급 및 직위체계 개선 필요에 대해 시/도는 66.7%, 시/군/구는 48.9%가 공감함.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수의 비교결과 청소년상담직 종사자 보수가 가장 낮은 수준임.
 - 2020년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 기본급 평균을 비교함.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본급은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기본급의 87% 수준이며,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본급의 90% 수준으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3. 정책제언

- ▶ 청소년상담사 양성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는 ① 청소년상담사 양성 관련 제도 개선, ② 청소년상담사 양성 관련 인프라 정비, ③ 청소년상담사 양성 관련 연구개발(R&D) 강화 등 3가지 영역, 10대 세부 정책과제 제시
 - 청소년상담사 양성 관련 제도 개선 영역은 청소년상담사 양성 관련 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책과제들을 선정함.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부여되는 국가전문자격으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배치기준, 보수교육 등에 관련된 법령과 제도들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것은 청소년상담사 양성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청소년상담사 양성 관련 인프라 정비 영역은 청소년상담사 양성 관련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현재 청소년상담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 특성화·전문화, 전국 각지의 거점(권역)별로 균형있는 청소년상담사 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양성기관 지정, 그리고 이러한 양성 관련 인프라의 체계 고도화를 위한 재정 확보에 관련된 과제들을 포함함.
 - 청소년상담사 양성 관련 연구개발(R&D) 강화 영역은 청소년상담사 양성 체계의 소프트웨어인 교육과정 개발과 중·장기적 수급, 배치, 활용 전략, 향후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사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관한 연구 추진 등의 과제를 제시함.



[그림3] 청소년상담사 양성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상담복지직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청소년상담 복지 분야 능력단위에 기초한 직무를 분석하여 직무모형을 제시함.

책무	능력단위				
개인상담 및 위기대응	내담자 응대 0702020215_16v2	접수면접 0702020216_16v2	심리평가 0702020202_14v1	상담준비 0702020217_16v2	개인상담 0702020218_16v2
	위기상황 확인 0702020222_16v2	위기지원 0702020223_16v2	청소년 부모상담 0702020207_14v1		
청소년 사례관리	청소년사례 통합관리 준비 0702020217_16v2	청소년사례 통합관리 운영 0702020218_16v2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0702020231_16v2	지역자원 연계 협력 0702020232_16v2	
상담자 역량개발	청소년(상담자) 교육훈련 준비 0702020229_16v2	청소년(상담자) 교육운영·평가 0702020230_16v2	상담 슈퍼비전 0702020211_14v1	상담자문 0702020208_14v1	청소년상담 연구개발 0702020213_14v1
	상담자 자기분석 및 소진관리				
상담기술 및 상담영역	전화상담 0702020219_16v2	온라인상담 0702020220_16v2 0702020221_16v2	집단상담 0702020204_14v1	진로상담 0702020224_16v2	진학·취업지원/ 생활기술교육 0702020225_16v2 0702020226_16v2
	가족상담				
상담행정	사업기획	사업/프로그램 홍보	예산관리 및 행정		

[그림4] 청소년상담 직무모형(안)

- 첫째, ‘청소년상담복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별로 수행정도 및 중요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현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를 개인상담 및 위기대응, 청소년 사례관리, 상담자 역량개발, 상담기술 및 상담영역으로 재조정함. 개인 상담과 위기대응은 내담자 개인 또는 위기청소년 개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의 유사성도 주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함.
- 둘째, 현행 게시판·메일상담과 채팅상담은 온라인 상담으로 통합함. 이는 두 능력단위 모두 상담현장에서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실태조사의 기타응답을 통해 ‘비대면 상담’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것도 반영하기 위함.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진학·취업지원 능력단위와 생활기술교육 능력단위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함.
- 셋째, 상담자 역량개발 책무에 ‘상담자 자기분석 및 소진관리’ 능력단위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함.
- 넷째, 상담기술 및 상담영역 책무에 ‘가족상담’ 능력단위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 또한 실태조사의 기타응답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의견이 제시된 것을 반영한 것인데, 비록 ‘청소년 부모상담’ 능력단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개인상담 및 위기대응 차원에서의 부모 상담과는 별개의 가족 상담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다섯째, 상담센터 운영, 프로그램 홍보 등 상담 행정에 관한 의견이 실태조사의 기타 질문을 통해 다수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여 별도의 책무로 구성함.

▶ 2021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본급은 일반직공무원의 기본급 대비 85% 수준임. 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본급을 일반직공무원의 기본급을 적용하여 2가지 안을 제시함.

- 1안) 일반직공무원 100% 수준 달성을 위해 2020년 기본급 기준대비 16% 인상(인상률 15%+물가인상률 1%)
- 2안) 일반직공무원의 98% 수준 달성을 위해 2020년 기본급 대비 13% 인상(인상률 12%+물가인상률 1%)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김동일, 김인규, 서영석(2017).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김창대, 이은경, 김인규(201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제도 개선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류성창, 조대연(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인재 핵심 역량 조사·분석. 고려대학교 HRD정책중점연구소.

서영석, 김동일, 고은영, 김민선, 김애란, 최민영(2013).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이광호, 강주연(2018).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 속성 및 새로운 청소년활동정책의 기조와 과제.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22.

황순길, 장미경, 권해수, 김은영, 박관성, 강석영(2005).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 자격검정 및 연수과목 개정안.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상담원.